

02 원가보전 통한 대학 연구경쟁력 활성화

연구 간접비는


연구환경 질적 수준 높이는 중요 자원

회계담당자는 원가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으로 정의한다. 원가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지급한 화폐금액으로 측정된다. 경영자나 관리자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떠한 것, 예를 들면 제품, 서비스 등의 원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어떠한 것'을 회계에서는 원가대상이라 하는데,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의 제품도 원가대상이 될 수 있고, 각 연구과제도 원가대상이 될 수 있다.

원가는 원가대상에 대해 측정되는데, 특정 원가대상과 관련되어 그 원가대상으로 바로 추적할 수 있는 직접원가와 특정 원가대상과 관련되지만 그 원가대상으로 바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원가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음료수를 병에 넣어 파는 회사의 경우 병의 원가는 특정 음료제품으로 바로 추적할 수 있는 직접원가이지만, 음료수를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 급료는 특정 음료제품으로 바로 추적할 수는 없으나 음료제품의 생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원가에 해당된다. 간접원가는 바로 추적이 되지 않아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이 어려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연구책임자에게 연구 간접비 사용권한 없어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도 특정 연구과제에 바로 추적할 수 있는 직접비와 바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로 구성된다. 연구 직접비는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와 특정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재료비, 장비사용료, 연구활동



글 권선국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kwon@knu.ac.kr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오글라호미대학교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비, 연구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정부과제의 경우 대학 교수의 인건비를 직접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의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대학에서 해당 정부과제의 연구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 국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비를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대학이 국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 간접비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여러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기관의 인건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연구 간접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연구 시설과 지원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연구수행기관의 실제 발생하는 원가(비용)이기 때문에 '원가(비용)보전'의 차원에서 당해 연구의 의뢰기관이 연구 직접비와는 별개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연구 간접비는 연구 공간 및 연구지원장비 등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및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연구 인프라의 질적인 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수주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 간접비를 대학에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 간접비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의 사용에 대한 권한은 연구 직접비에만 있으며 연구 간접비는 대학에서 다른 연구 간접비와 합하여 전체적으로 여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학의 책임자나 대학연구지원기관의 책임자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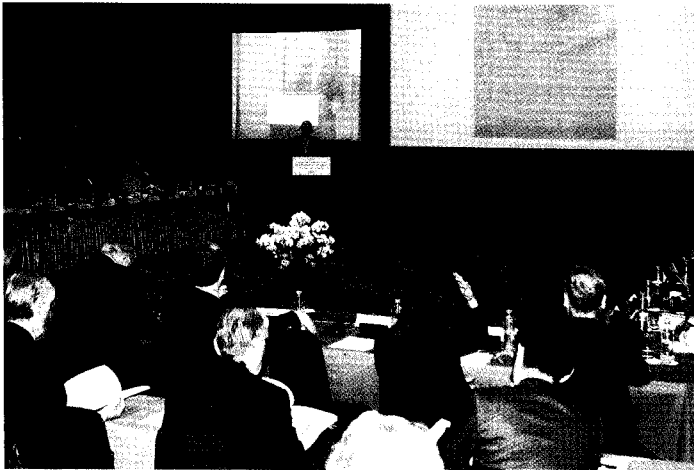
연구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연구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 간접비가 실제 연구지원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는 대학에서 국가의 연구과제를 위해 직접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결과로 대학이 국가의 연구과제에 기여하는 경우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연구 간접비 계상기준 확정

2005년 1조8천273억 원이던 대학분야 총연구비는 2009년 4조11억 원으로 4조 원을 넘어서게 되며, 연평균 약 1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총연구 간접비는 2007년 2천530억 원, 2008년 3천460억 원, 2009년 4천350억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도별 총연구비 대비 연구 간접비의 비율은 2007년 7.8%, 2008년 9.9%, 2009년 1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선으로 미국(40~60%)이나 일본(30%)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대학에서 간접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현재 정부 부처에 따라 연구 간접비 적용 비율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부처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예외사업들 때문에 연구 간접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2009년 약 10.8%), 각 부처별로 연구 간접비 지급비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연구 간접비 적용 비율을 가능하면 통일하고, 적용비율의 예외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연방정부의 연구비에서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비율이 일정하며, 이에 대한 예외는 관련법이나 규칙에서 명문화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대학의 연구 간접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연구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 B등급 대학의 경우 신청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이 적용되게 되며, 각 대학의 연구 간접비 실제 집행금액 기준으로 실사율을 도출한 후 연도별 상한 지



▶▶ 2011년 11월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최로 열린 세계 연구 중심대학 총장회의에서 로버트 비르기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 총장이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 버클리), 덴마크 공대 등 28개국 50여 개 해외대학과 국내 한양대 및 이화여대 등에서 모두 70여 명의 총장과 부총장이 참석했다. (연합포토)

급률 범위 내에서 그 대학의 연구 간접비율이 결정된다. 2011학년도 연구 간접비 원가계산을 신청한 대학들의 수는 총 64개 대학이며, 최저 연구 간접비 실시비율은 23.8%, 최고는 59.01%이며, 평균 실시비율은 34.71%이다. 원가계산에 의하지 않은 대학(161개교)은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에 따라 A등급 20%, B등급 15%, C등급 10%, D등급 5%의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 연구 간접비 적을 경우 대학의 연구지원 축소 불러

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비 예산은 연구 직접비와 연구 간접비를 합한 총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구 직접비와 연구 간접비는 상충관계에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책임자는 연구 간접비를 줄이고 연구 직접비를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

러나 연구 간접비의 원가보전이 충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대학은 연구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줄이거나, 연구지원인력을 해고하거나, 연구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차원에서의 연구지원에 막대한 축소가 이루어져 대학의 연구경쟁력의 감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감소는 국가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구지원에 소요되는 연구 간접비에 대한 원가보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실제 연구지원비용을 축소하지 않으려면, 대학의 교육부문 수입(국립대학의 경우는 기성회계 수입, 사립대학의 경우는 교비회계 수입)을 연구 간접비를 충당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는 학생의 등록금이 연구지원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연구 인프라·연구환경 수준 높이는 수입 원천

연구 간접비의 원가보전이 충분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지원투자를 축소하는 대안과 교육부문에서 연구 간접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둘 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기 때문에 연구비지원기관은 실제 발생한 연구 간접비를 대학에 보전해주어야 한다. 연구 간접비는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주요 재원이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는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과 연구행정 지원 등의 연구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연구 간접비는 이러한 연구환경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는 연구 간접비의 규모가 매우 크고 다년간의 추이 예측이 가능하므로 연구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입 원천이 될 수 있다.

정부와 대학 간의 연구파트너십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정부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과제의 경우 직접비와 상당한 수준의 간접비를 지원해야 한다. 대학에서 이러한 지원된 연구 간접비를 활용하여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면 대학의 연구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연구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⑤